

차 ■ 좌담회 '인재불사 이렇게', 전통강원·교육 심태... 4-5면
레 ■ 스님박사 학위논문 분석... 6면 ■ 해방 50년 불교학 50년... 7면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시대의 걸승은 미래를 여는 정신적 지주

불교의 성쇠

3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자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은 꽃을 활짝 피워 인간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민족의 정서와 불교가 융합하자 민족 특유의 불교정신인 화쟁(和靜)사상을 정립하였다. 조화와 통일, 포용과 창조를 의미하는 화쟁사상은 원효스님에 의해 결정체를 이룩한 것이니 이것은 불법이 여명기를 거쳐 만물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채택되어 생활윤리나 사회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이에 국난이 일자 8만대장경 조판이라는 세계적인 불후의 대작 불사를 통해 민족의 자존을 지켰다. 이 시대는 고종과 선종이 활짝 피어 그 능엄함을 자랑하였으니 대각의천(大覺義天), 불일보조(佛日普照) 등 한낱의 태양을 의미하는 위대한 선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조는 개국과 동시에 유교를 국시로 내세우며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전대에 불교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도성출입도 금지하였다. 양가의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승려계급을 칠천(七等)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허풍당 보우스님이 불교중흥을 위해 순교를 당한 이래 서산휴정(西山休靜)에 이르러 잠시 불교의 존재가 내외에 파시되며, 이후 불교는 끊임한 암흑 속에 잠기게 된다.

전세계가 근대화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의 한국은 애석하게도 해국이란 빗장을 걸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무렵 불교의 사안은 황폐화되어 있었으며, 선맥은 끊어져 짐이나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이 사찰의 역할인양 착각하거나 득남·출세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이때 경허라는 걸승이 등장하여 선맥을 복원하고 민중, 해월, 수월, 한암 등의 제자를 배출했다. 캄캄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달그림자들이 남북에 걸쳐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금오, 효봉, 구산, 성철 등의 선승들이 불교를 중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이래 월하, 월주스님 등에 이르러 불교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불교의 개혁은 불법의 중흥을 통해 인류사회의 기여하는 것이란 점에서 바야흐로 21세기 문명의 구심점으로서 불법의 커다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음을 뜻한다 할 것이다.

국력의 기초

원효스님이 찬란한 불법의 태양을 솟구치게 한 이래 불교의 범용은 고려의 불일보조, 조선의 서산휴정, 근대의 성우경허로 계속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홉을 뜻하는 원효, 한낱을 뜻하는 불일보조, 해질녘을 의미하는 서산휴정, 한밤을 상징하는 경허의 등장은 단순히 호사자들의 말장난을 떠나 일찍이 간직 못했던 역사의 흐름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불교 1700여년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하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적 상황과 불교 사이에 표현하기 힘든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교가 흥왕할 때 민족의 정기가 쇠약아졌으며, 불교가 쇠락할 때 국운도 기울어져 희미한 백일등 처럼 재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건데 3국의 화려한 문화는 그 기저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 3국을 통일한 신라의 저력도 불교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발휘된 것이니, 그들은 통일국의 이념과 원리를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이었다. 원광(圓光)의 세속5계는 신라 사회를 지탱한 사회윤리로서 애국애민정신과 용기와 지혜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불교의 위대한 빛을 눈리에 뿌린 원효는 화쟁사상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민족의 정신 속에 인본주의가 뿌리내리게 했다. 이러한 민족의 지력이 3국을 통일하고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나라의 군대를 한반도 내에서 축출할 수 있게 했다.

고려의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건국하여 불교적 가치관에 따른 자유와 평등사상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들은 불교를 통해 국민정신을 한마음이 되게 만들었으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였다. 당시 유럽·아시아 대륙을 석권했던 몽고세력이 침입하자 그에 30여년간 대항하였으며, 거란의 침입도 용기와 슬기를 발휘하여 물리쳤다. 그와 같은 지력은 백고좌(百高坐)법회를 열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을 고취시키거나 왕사와 국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는 만해 한용운의 절규를 새벽을 일깨우는 첫닭의 울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불교는 인재불사를 1995년도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역사의 새벽 연 원효·서산등의 맥 이어야 교수방법 개발 절실...재가 교육도 과제

사를 통해 국정을 자문받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단 자체도 승과제도를 통하여 승려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타락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중엽 이후 승단이 자체정화력을 상실하고 권력과 유착하여 정쟁에 휘말리거나 대중과 유리되어 사회교육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자 사회적 혼란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마침내 역성(易姓)혁명을 통하여 왕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불교의 인재양성과 관리체계가 무너진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은 건국한 주축세력들은 기독교인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시(國是)로 새로운 민족사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인구의 15%도 되지 않았던 지배계급은 국시인 유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랐으나 여성이나 대부분의 서민 대중들은 불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위정자와 서민간의 사상적 괴리를 매꾸어줄 국론통일의 사상체계가

없으므로 인하여 사회윤리는 경직되고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면 자주적 자존이 아닌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도 불교도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국난이 발생하자 살신보국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난타개에 앞장섰다. 일체의 유정(有情)을 보살의 화현이나 부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유교의 배타성이 사상의 자유로움을 가로막아버림으로 인하여 조선 역사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와 조화를 강조하는 불교의 쇠락과 국운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채국정책으로 잠자고 있던 조선은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다. 이 무렵 이동인스님, 무불스님, 김육균, 유대치, 오경석 등 개혁을 위해 육신을 불사른 불교도들의 노력도

◇시대가 다변화되고 포교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불교계에서는 '사람을 길러야한다'는 소리가 고조되고있다.

물거품이된 채 일본의 식민지라는 민족사 일대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만해 한용운은 만당(甘露)을 결성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며, 용성스님은 대각교운동을 통하여 민족을 깨우치고 불교의 중흥을 획책하였다.

장래 좌우할 열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인재의 양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서 불교의 진정한 중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단언하건대 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의 인재양성

이 단지 승려들만의 교육이나 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승가의 구성원이 4부대중이며, 4부대중의 화합과 상호경계 속에서 참다운 불교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지칭하고자 한다.

그동안 불교계는 강원과 선원 위주의 승려교육을 지향했다. 선원과 강원은 한문경전 위주의 교육을 했거나 출가승 위주의 수행을 강조했다. 승속이 떠나버린 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 이 사회의 지도적 종교가 될 수도, 불교의 중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화를 천시하고 선수행만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적 기반과 유리되었거나 출가지상주의 속에서 재가를 출가자의 종속물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재가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고 재가 생활을 가치없는 삶으로 도외시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불교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오류에 빠지게 했다. 여기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게 되었

으며, 포교의 담위성이나 방법개발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게 되는 후유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조선조 후기 이래 이 땅에는 서구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의 존재의의에 대한 냉철한 지적 속에서 기존 민족의 삶과 가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며, 종교의 생명력이라 생각한 것이다. 해방 이후는 서구의 자본주의와 과학혁명, 발달한 교육제도를 앞세우고 민족들의 정서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산업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알맞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했다. 따라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인재양성이 한국불교의 장래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인재 양성이 없다면 불교의 중흥은 커녕 민족의 위면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불교의 중흥을 위한 해법책은 무엇인가.

우선 산업사회 내지 21세기를 인도할 승려를 양성하기 위해 정통교육(강원,선원)과 현대식교육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다양화된 현대학문을 모두 배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종교학, 사회학, 서양철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은 습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문경전과 비교하여 정확하고 이 시대에 맞는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불교계의 교육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법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 사람의 강사로 꾸러가는 강원의 형편으로는 전문화하거나 다양한 지식을 교수할 수 없다. 나아가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에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가교육은 단순히 5개나 10계를 주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교적 이념을 이해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인류와 세계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불교도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은 승려교육이나 인재양성이 급할 것이겠지만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 불타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도 재가자의 교육과 양성은 대안이 소중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는 만해 한용운의 절규를 새벽을 일깨우는 첫닭의 울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불교는 인재불사를 1995년도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특별취재단〉

- ◇ 차차서 조사자료를 받
- ◇ 정성운 기자
- ◇ 김재경 기자
- ◇ 박미영 기자

생활 속의 불교 12

협찬: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독사굴로 들어간 두루몽수리

무쇠로 만든 연장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철상에 모였다가 용광로로 들어가 다시 무쇠로 재성되어 나온다. 금붙이처럼 금방으로 모였다가 금 제품이 되어 다시 나온다. 그렇듯이 사람도 살아 생전의 마음 그 차원이 금이나 무쇠나, 강동이나에 따라 더하고 덜함도 없이 되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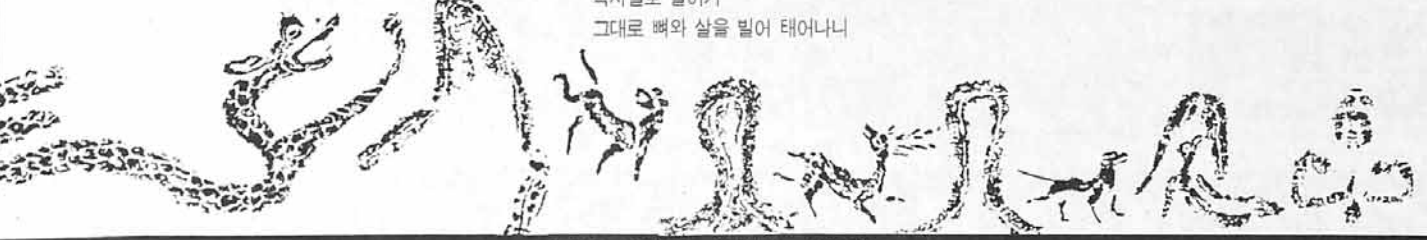
사람이 불법의 도리를 모르고 죽게 되면 그 의식 그대로 눈 멀고 귀 멀어 생시에 하던 대로 거기에 걸려

한 발자국도 새삼스럽게 내딛지를 못한다. 사대는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식만 남게 되니 눈도 없고 귀도 없으며 마치 두루몽수리 굴이라 다만 생전의 습대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 해매는 중에 불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 겁을 내고 불바퀴를 만나면 빠져 죽을까 겁을 낸다.

그러다가 생전에 개와 같은 짓을 많이 했으면 독사굴로 들어가 그대로 뼈와 살을 털어 태어나니

그 모습을 어찌하겠는가. 고로 살아 생전에 아귀 축생의 마을을 지주 났으면 아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지옥이 따로 없이 독사 굴로 들어간 개 곧 지옥이 아니겠는가. 살아서 천당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 불법의 도리를 외면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두루몽수리 굴이 되지 말고 살아서 마음 공부를 하여 밝디 밝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법의·생활의·현대와·세계화

“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

전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 전화: (02) 215-1472
215-1071
팩스: (02) 215-1076